



## 열린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다



모바일사업팀

비장의 무기는  다.

정답:  더듬이

팀원들의

새해 희망사항은  이다.

정답:  휴식공간

WinCE기술을 기반으로 첨단기능의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는 이나루T&T(대표 배희숙) 모바일사업팀은 획기적인 새로움에 목발리하는, '열린 사고'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. 팀원 대부분이 30대 초·중반이라 분위기가 젊고 활기차며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직응력도 빠른 편. 그 열정과 흡인력이 어찌나 강한지, 새로운 디지털 제품의 출시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, 혹 영화 속에 새로운 미래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도 등장할라치면 먹이를 찾은 곤충처럼 자동적으로 촉각이 곤두선다.

**"개발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일구어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죠.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, 저희 팀이 그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"**

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, 세미나 등을 자주 갖곤 한다는 이변승 주임은 모바일사업팀의 최대 강점 중 하나로 토론문화를 손꼽는다.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또 그렇게 생성하고 있다.

모바일사업팀의 팀원은 총 70여 명. 결코 적지 않은 수이거니와, 팀원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키텍처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같이 소주잔을 기울인다거나 함께 운동을 하면서 퇴근 후 여가를 즐긴다. 그러나 비쁜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야근을 하는 날이 비일비재해 아마저도 힘든 것이 사실. 그럼에도 팀원들 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다.

**"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나이와 직급을 떠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은 아마 우리 팀이 최고일 겁니다. 신입자들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것을 모델링해서 다음 후배를 양성하고 있죠."**

홍석정 주임은 팀원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는 편이라고 한다.

그렇다면 이들이 2006년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. 의외로 소박한 이들의 대답은 바로 회사 내 휴식공간의 확보. 워낙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라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공간이 절실하다고 아름다운 창조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, 에너지 넘치는 모바일사업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.